

- 주요 뉴스: 5월 FOMC 의사록, 강력한 통화긴축 예고 주요 내용은 시장 예상에 부합
 - 세계은행 총재, 라-우 전쟁이 글로벌 경기침체를 초래할 가능성
 - ECB 부총재, 3/4분기 예금금리의 마이너스 탈피를 예상
 - 중국 총리, 최근 경제 여건은 일부 영역에서 코로나 팬데믹 초기보다 어려운 상황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5월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안도감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1.0%], 달러화 강세[+0.2%], 금리 하락[-1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일부 소매업체의 실적 호조 기대 등으로 매수 증가
 유로 Stoxx600지수는 에너지 관련주 강세 등으로 0.6%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전망 등이 영향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5%, 0.4%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제어 의지 등으로 1개월래 최저
 독일은 ECB의 통화긴축 전망 및 성장둔화 우려 등으로 2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266.4원, +1.8원) 0.1% 상승, 한국 CDS 보합

		5/25일	5/24일	전일대비			5/25일	5/24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978.7	3,941.5	0.95%	국채 금리 10y	미국	2.75%	2.75%	-1bp
	유럽	434.31	431.58	0.63%		독일	0.95%	0.97%	-2bp
	중국	3,107.5	3,070.9	1.19%	CDS 5y	한국	47bp	47bp	0bp
	일본	26,678	26,748	-0.26%		중국	76bp	80bp	-4bp
	한국	2,617.2	2,605.9	0.44%	위험 지표	EMBI+	-	415	-
환율	달러지수	102.10	101.86	0.24%		VIX	28.37	29.45	-3.67%
	유로화	1.0681	1.0736	-0.51%		WTI유	110.33	109.77	0.51%
	엔화	127.32	126.83	-0.38%	원자재	구리	427.7	432.6	-1.12%
	위안화	6.6932	6.6537	-0.59%		금	1,853.5	1,866.5	-0.70%
	원화	1,264.6	1,266.2	0.13%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5월 FOMC 의사록, 강력한 통화긴축 예고. 주요 내용은 시장 예상에 부합

- 다수의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 6월과 7월 각각 0.5%p의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 또한 정책금리를 신속하게 중립금리 수준 혹은 그 이상까지 높여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 6월 대차대조표 축소 시작에도 공감
- 다만 상당수의 위원들은 경기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긴축 기조 유지 여부는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 또한 물가안정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양호한 노동시장 여건을 유지하기 위해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
- 이는 경기가 급격히 둔화되면 통화긴축의 속도 조절 혹은 일시적인 보류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 한편 통화긴축으로 금융시장 안정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며, 특히 국채시장의 유동성 부족 발생 가능성도 제기
- 일부 위원은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는 신호가 존재한다고 발언. 반면 다른 위원들은 공급차질이 심각하고, 가계재정 상태가 양호하여 물가하락을 유도할 정도로 소비가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진단
- BlackRock의 Bob Miller는 7월 FOMC 이후 인플레이션 혹은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통화긴축 속도 조절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평가. BofA의 Ethan Harris는 이번 결과가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여름이 지나야 통화긴축 속도 조절 여부와 같이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사안들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세계은행 총재, 러-우 전쟁이 글로벌 경기침체를 초래할 가능성

- 멜패스 총재는 러-우 전쟁에 따른 식품 및 에너지 가격 급등 충격을 경고. 미국, 유럽, 중국이 경기둔화를 겪고 있으며, 특히 신흥국들의 경우 관련 여파로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

■ 연준 부의장, 인플레이션 제어가 연준의 가장 강력한 도전

-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저소득 가정의 전체 소비에서 경우 음식, 에너지 등의 필수소비재 비중이 매우 높기에 물가안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플레이션 수준을 낮추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

■ 미국 4월 내구재수주 전월비 증가율, 소폭 하락. 기업 투자의 둔화를 시사

- 상무부에 따르면, 해당 증가율은 0.4%로 3월(0.6%) 대비 하락. 이는 금리인상과 금융여건 위축 등에 기인. Capital Economics의 Michael Pearce는 금리에 민감한 기업들의 시설투자 성장세가 약화되기 시작했다고 진단

■ ECB 부총재, 3/4분기 예금금리의 마이너스 탈피를 예상

- 데 쿼도스 부총재는 3/4분기에 자산매입을 종료하고, 7월에 첫 번째 금리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또한 라가르드 총재의 통화정책 경로를 지지하며, 0.5%p 금리인상 여부는 경제 전망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의견 표명
- 네덜란드 중앙은행 닛 총재는 ECB 라가르드 총재의 금리인상 관련 의견을 지지하며 7월 0.5%p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발언. 파네타 이사는 통화정책 정상화가 정책금리를 중립금리 수준까지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

■ ECB, 모기지 금리 상승 시 역내 주택가격 상승세는 둔화될 가능성

- 현재 유로존 주택가격은 평균 15%, 일부 지역은 60% 고평가 상태라고 진단. 한편 향후 러-우 전쟁 영향으로 인한 경제전망 악화 혹은 높은 인플레이션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자산 가격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

■ 중국 총리, 최근 경제 여건은 일부 영역에서 코로나 팬데믹 초기보다 어려운 상황

- 리커창 총리는 경제지표들이 심각하게 부진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언급. 이에 금년 2/4분기에 실업률 하락과 성장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또한 5월 말까지 안정적 성장을 위한 이행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부연

■ 중국 외환관리국, 자본유출은 충분히 통제 가능

- 최근 위안화 약세에 따른 자본유출 증가 등은 통제가 가능하며, 당국은 계속해서 투자를 위한 통로를 마련하겠다고 강조. 왕레이 부국장은 복잡한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외국인들의 투자 축소 등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진단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5/25 현지시각 기준)

- 독일 6월 Gfk 소비자신뢰지수: -26, 5월(-26.6), 예상치(-26)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소비에 대한 상반된 시각, 소비패턴의 변화 등에 기인 - Financial Times

(Are consumers . . . just fine?)

- 최근 월마트 등 주요 소매업체의 부진한 실적은 소비지출 감소 신호를 발신. 반면 주요 투자은행들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한 저축 등으로 5월 소비가 전년동월비 10% 증가했다고 평가. 이와 같이 시장에서는 소비 관련 상이한 시각이 존재
- 소매업체의 실적 부진은 내구재 판매 감소 및 서비스부문 소비 증가 등 소비활동의 정상화 때문인 것으로 추정. 또한 고소득층은 소비 관련 고물가의 영향이 제한적이나 저소득층은 고물가로 임의소비재 소비를 줄인다는 사실 또한 고려할 필요

■ 다국적 기업의 중국 이탈, 코로나 19 정책과 규제 등이 주요 원인 - WSJ

(Foreign Business is Falling Out of Love With China)

- 중국 주재 EU 상공회의소 4월 조사에 의하면, 응답기업의 23%가 중국에서 여타 지역으로 생산거점을 이동할 예정. 이는 10년 만에 최고 수준. 상당수의 미국 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정책 여건의 변화로 중국 투자를 축소
- 중국의 코로나 19 정책에 따른 봉쇄와 규제 등으로 수출이 부진하면서, 해외기업의 투자 유인이 저하. 또한 중국 정부의 코로나 19 관련 경직된 접근방식도 해외투자 유입에 걸림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미국 금융시장, 고물가 지속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 - 블룸버그

(Has the Inflationary Wave Broken? Expect More)

■ 연준의 금리인상, 비은행 대출기관은 주택 재융자 감소에 따른 충격에 직면 - WSJ

(Rising Rates Are Battering Mortgage Lenders)

■ 미국의 농업 보조금 정책, 최근 식량위기에는 부적절한 대응 - 블룸버그

(The Food Crisis Is Bad. US Crop Insurance Makes It Worse.)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